

“환경부 주관으로물관리 일원화 되어야”



홍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중앙)은 지난달 13일 국회 환노위위원장실에서 이상호 연합회장(좌)과 김병오 본지 편집국장(우)과 대화를 가졌다. <대담> 이상호 연합회장 · 김병오 편집국장

“21세기는 환경의 세기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개발 우선 논리에 환경이 뒷전에 밀려있는 느낌이 듭니다. 하루빨리 의식전환이 필요합니다.”

17대 국회 2기 환경노동상임위 수장직에 취임한 홍준표 국회환경노동위원장은 환경의 중요성을 힘있게 강조한다. 그는 최근 일련의 현안 즉 한미 FTA, 미군부대 오염, 환경부·건교부 통합론 등 다양한 환경적 당면과제를 국회 차원에서 슬기롭게 해결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환경을 대변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이끌어갈 홍준표 위원장의 소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지는 지난 7월 13일 국회 환노위 위원장실에서 홍 위원장을 만나 국내외 환경현안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 17대 국회 후반기 환경노동위원장직에 취임하셨습니다. 소감부터 한 말씀 해 주시죠.

▲ 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회복될 수 없거나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므로 자연과 상충되지 않고 조화를 이루어나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의 개발위주 정책드라이브를 전환시켜 이제는 개발되고 오염된 산하를 복원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21세는 환경의 세기이자 IT등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도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 서 있는 시점에서 후퇴되는 정책을 펼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적인 현안과제들이 즐비한 현 시점에 중책을 맡게 돼 책임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나서서 해야 할 일이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상임위가 되도록 위원장으로서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바라본 국내 환경의 현실은 어떠하다고 보시는지.

▲ 저는 15대 때 환경노동위원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새만금·천성산 등 이제까지 대형 국책사업들이 환경문제를 사전에 점검하지 않거나 소홀히 하는 바람에 소송 사태까지 발생해 국고에 막대한 손실을 미쳤습니다.

앞으로는 대형 국책사업 시행 이전에 미리 환경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환경문제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최근 논의되고 있는 환경부와 건교부의 통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 건설과 환경은 정 반대의 개념입니다. 건설은 개발을 촉진하는 기능이고, 환경은 개발을 규제하는 기능입니다. 촉진하는 부서인 건교부와 규제하는 부서인 환경부가 한 곳에 있을 경우 환경부가 건교부의 일개 '국'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정부조직 운용에 있어서 환경을 약화시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기에 환경부와 건교부의 통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현재 환경부가 독립돼 있어도 개발과 성장에 밀려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건교부에 예속된다면 환경마인드가 상실될 위험이 있습니다.

♣ 최근에는 한미 FTA가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환경분야의 개방 정도와 향후 대응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 그야말로 자유무역협정은 상호 동등한 조건과 균등한 분배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느 나라에 유리하거나 굴욕적인 협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번 한미 FTA협정문과 서비스산업 개방문제에 있어서도 상호 양보할 수 없는 평행선을 고수하다 보니 파행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특히 서울 2차 협상에서는 환경분야는 협상조차 못해 보고 끝났습니다. 향후 재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 되겠지만 환경분야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킬 것은 지키고 개방할 것은 개방해야 한다고 봅니다. 문제는 국회의원들조차 협상내용에 대해 식견이 없다는데 있습니다. 향후 국회 차원에서도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입니다.

♣ 미군기지로 인한 오염에 대해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지.

▲ 오염자부담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미군이 오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군이 주둔하는데 필요불가결한 오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오염은 미군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한 미방위조약에 근거해서 처리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시민단체, NGO들의 활동범위 확대와 다양한 정책 참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지금 권력의 이동을 보면 시민 쪽으로 이동하고 있

III 표지인물과의 만남



▲ 홍준표 의원이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국회 환경노동 위원장 후보자로 선출되는 장면



▲ 홍준표 환경노동위원장은 지난 7월 11일 국회 환노위 원장실에서 미국노총산별회의(AFL-CIO)의 제프 보그트 정책국장과 팀 리안 연대센터 아시아담당 임원을 공식 면담해 의견을 청취했다.



▲ 2006년 6월 26일, 제260회 국회(임시회) 제20차 환경노동위원회의

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형태의 민주주의, 특히 요즘처럼 IT와 인터넷의 발달로 사실상 직접 민주주의로 돌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시민 권력으로서의 이동은 시대적인 조류입니다.

사실상 시민 권력의 힘의 원천은 '도덕성'입니다. 시민 권력이 정부나 의회 권력보다 강해지는 것은 도덕성 때문입니다. 만약 시민 권력이 도덕성을 상실한다면 오히려 권력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시민단체나 각종 NGO 단체들이 다양한 활동을 펼칠 때 도덕성에 근거를 두지 않으면 국민과 시민들이 승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민단체와 NGO가 권력기관으로 변모하는 것이 시대적 조류인 것은 사실이나 무엇보다 도덕성이 뒷받침 돼야 할 것입니다.

♣ 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환경분야 만큼은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세계 각국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기치 아래 환경규제를 계속 하여 강화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아름답고 건강한 자연환경을 위해서라도 환경규제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국가간 환경규제 수준의 차이는 각국의 수·출입, 생산성, 해외투자 등에 영향을 미쳐 국가 경쟁력의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환경규제의 문제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인류 생존에 심각한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환경규제의 강화는 필요합니다.

♣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는 포부와 목표가 있다면, 또 환경노동 위원회를 어떻게 이끌어갈 생각이신지.

▲ 물관리 일원화가 이뤄지지 않아 4대강 특별법까지 통과시켰지만 잘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부 주관의 물관리 일원화를 임기 중에 한 번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또 환경노동위원회를 의원이나 직원들에게 인기 있는 상임위원회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갈등이 있을 경우 국회 밖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고 상임위원회에서는 갈등을 증폭시키지 않겠습니다. ◀

홍준표 의원, 그가 걸어온 길



유년시절 8할은 가난 = 유년시절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던 가난... 그러한 가난 속에서도 늘 일등을 놓치지 않았던 덕분에 다섯 형제 중 유일하게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다. 대구 영남중, 고등학교시절 도시락 대신 수도물로 배를 채우며 생활해 왔다. 그러던 어느날 아버지가 절도협의를 받게 되었다. 경찰의 편파적인 수사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결국 3년후에 아버지는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는 있었지만 그때부터 그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의해 억울하게 짓밟히며 살아갈 사람들을 위해 검사가 되겠다고 결심했다.

모래시계 검사시절 = 그는 검사가 된 후 11년 동안 대검이나 법무부 구경도 못했다. 오직 밑바닥에서 수사만 열심히 했다.

권력형 비리를 건드려 광주로 좌천되었고, 광주에서 조폭과의 전쟁 1년 반만에 광주조폭들의 로비로 다시 서울입성, 검찰 내부의 '다구리' 위협에도 불구하고 슬롯머신의 대부 장덕진과 6공화국의 2인자 박철언을 구속시켰다. 그는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짓밟는 우리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조금이라도 타파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는 슬롯머신 수사이후 영원히 검찰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정치에 입문하다 = 검사직을 사직하고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 그때부터 검사시절 당했던 사람으로부터 협박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다.

검사를 협박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잡아 넣을 수 있었지만 변호사는 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협박으로부터 벗어나보고자 하는 소박한 동기에서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다. 그리고 실제로 1996년에 당시 신한국당에 입당한 이후로 그에게는 협박전화가 뚝 끊어졌다.

국회의원으로서 활동 = 국회의원이 된 후 그는 공적자금비리의혹, 벤처비리의혹, 무기도입비리의혹 등 국민의 재산을 도둑질 하는 권력형 비리의혹을 줄곧 제기하였다. 그는 폭로정치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비판에도 개의치 않았다. 국민의 세금이

도둑질 당하는 걸 보지 않기 위해 욕을 먹더라도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다. 그는 지금도 내나라,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 이제는 국회의원으로서는 진정으로 지역간, 계층간, 세대간 갈등과 분열이 해소되길 바라며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할 각오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 ◀

홍준표 위원장 프로필



한나라당 / 서울 동대문구(을)
제15대, 제16대, 제17대(현) 국회의원

1954년 경남창녕 출생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시험합격
청주지검/부산지검 울산지청
서울지검 남부지청/광주지검/서울지검 검사

현대중공업 노사분쟁사건 수사(1987.8)
건설업계 조직폭력사건 수사(1991.7)
국제PJ파 조직폭력사건 수사(1992.1)
슬롯머신업계 비호세력사건 수사(1993.5)

한나라당 원내부총무
한나라당 전략기획 위원장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혁신위원회 위원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현)